

## || 사랑의 손길로.....



김 인 호  
(송원축산 이사)

「꿀」소리 하나 밖에 모르는 병어리들과 우리들은 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선조때부터 좋지 않은 시력 때문에 물체 분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시력이다 난시까지 겹친 돈공들을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욕설을 퍼붓고 삼이나 몽둥이로 때리고 공놀이 하듯 발길질을 해서야...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돈공들이 터득하게 되는 것은 눈치 보는 일 뿐이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얼씬하기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놀란 표정을 한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피부가 창백해질 정도다. 어떤 놈들은 구석에 박혀 오줌을 짚꿈거리고 있을 정도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 놓고 경영이 잘 되길 바랄 수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 “천만의 말씀”이 아닐까 싶다. 양돈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잘 되어질 수 없다. 눈치밥 제대로 소화될 리 없고,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체들의 건강 또한 좋을 리 없다. 새끼 먹을 젖이 제대로 나와 줄리도 만무하고... 폭행한 만큼 뱃속에서 자라는 애가 떨어지고, 포유중인 새끼들의 위축돈 사고가 늘어나고 마는, 그래서 산자수가 적고 육성율이 형편없는

관리를 해서야... 양돈은 사랑의 손길 없인 성공하지 못한다.

### 돼지의 꿀소리 강도로서 경영상태 알 수 있어

돈공들이 사람들과 마주칠 때 반응을 보이는 움직임이나 꿀소리의 강도로서 그 주인의 관리점수를 매길 수 있다. 포악한 성질까지도 알아 낼 수 있다. 그래서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지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에미와 이별한 새끼들이 에미를 찾아 헤매고 있는 애타는 모습을 보고도 에미를 대신하고자 하는 사랑스런 마음(젖을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영양있는 사료를 소량씩 자주 밥그릇에 놓아 주는 정성) 없이는 새끼들을 고루 양육시킬 수 없다. 물꼭지가 돈방 내에 있으니 젖을 대신하는 물을 충분히 먹으리라는 생각은 지능높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물이 있다는 표시는 물소리가 나든지 물이 푹푹 한방울씩 떨어지게 하여 물냄새가 나야지만 돈공들의 청각과 후각을 자극

시킨다.

이러한 자극이 없는 보살핌 하에선 수분결핍증으로 원인 모르게 쓰러지는 새끼돼지들이 있게 된다. 이러한 사랑스런 배려 없이는 물기를 찾다가 고여있는 오물을 들이키기 일쑤이며, 그렇게 되면 설사까지 가중돼 생명을 빼기는 시간이 더욱 단축된다. 다른 돈방으로 이동시킨 후 돈공들 스스로 물 찾기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 호기심 가장 많은 5일령부터 입질훈련 시키는 것 중요

젖 떨어진 새끼돼지들의 젖살이 빠지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양모 노릇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포유기간 중에 젖살 빠지지 않는 훈련(입질훈련→5일령부터 11일령까지의 1주일 훈련)을 거치며, 포유기간 중 젖을 능가하는 사료의 급식을 지속시켜 준다면(이 기간 중 물 먹는 연습을 병행시켜야 됨) 젖살 빠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새끼돼지들의 호기심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5일령이 되면 돈공들의 일생 중 극에 달하게 된다. 세상에 나와 보니 구경거리가 많다. 선조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으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청각과 후각으로 출세의 길을 닦아 나간다. 에미의 체취부터 익히고 영역을 넓히다 보면 한평 남짓한 돈방을 익히기엔 4일이면 충분하다.

그 후엔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는 궁리를 하게 된다. 이 때가 5일령이며 돼지일생 중 호기심이 가장 강력하게 발동되는 시점이 된다. 이 때를 이용하여 입질훈련을 시작함이 좋다. 첫날 두당 6그램이면 충분하며 이튿날은 첫날 급여했던 양의 삼분의 일(2그램)이어야 배속이 편안해진다. 그후로부터 소량씩 올려 첫날 급여했던 6그램이 입질 후 일주일째 급여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어야 된다. 이 1주일이 입질훈련 기간이며 이 훈련기간 중 위장이 발달되어 에미없이 홀로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 뒤로도 소량씩 사료가 떨어질 때마다 하루 3회 이상 나누어 주며 관리를 해 주어야 이유 후 젖살 빠지는 것을 예방시킬 수 있다.

또, 한가지 포유기간 중 하루정도는 에미와 떨어져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방법(가능한 한 분만후 15일령 전후이면 좋음. 이 때 모든사료 절식시켜야 됨. 새끼 전용 물꼭지 틀어 놓고 충분한 물을 먹게 해주고 모든 사육돈방 바닥이 청결해야 되며, 이튿날 새끼 설사에 방을 위해 새끼사료 내 “항생제+소화제” 첨가 해야 됨)도 젖살 빠지는 것을 예방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 돼지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하고 난시가 있다

사랑이란 「돼지=사람」이라는 일체감 없이는 우려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돈공들의 시력을 알아보지 않고 돈공들을 이동시키다간 신경질을 내기 딱 알맞게 된다. 돼지들의 시력이란 물체의 모양새만 감지할 수 있는 기능 뿐이다. 흰 빛 바탕에 검은 물체로만 감지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거기다 난시까지 겹쳐 가만 있는 물체도 약간씩 어른거린다. 이런 눈으로 어떻게 사람이 내어놓은 길을 사람처럼 갈 수 있으리. 돼지들은 후각으로 시력을 대신해서 간다고 간주하면 옳다. 흰 빛 공간 아래 검은 지면을 딛고 특유의 길냄새 따라 지팡이 없이 간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돈공들에게 물이망으로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파이프 오솔길을 내주면 더욱 좋음). 검은 물체를 반사적으로 피하는 돈공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돈공들을 이동시켜줘야 된다. 웅돈이나 모돈은 지나갔던 길을 후각으로 기억해 내는 본능이 있으므로 여러 차례 반복하면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된다. 돼지들의 후각은 관리인의 옷 내음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

돈공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작업복을 세탁할 때 사용하는 비누도 같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배려도 해 주어야 된다. 더욱 사랑스런 행동을 해보려면 돈공들이 반갑다고 다가설 때 발길질이나 삼으로 휘둘러 돼지들을 쫓아버리지 말아야 된다. 가능한한 손으로 떠밀어 내거나 몸으로 버티면서 일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돈공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대해 주어야 된다. 오히려 쓰다듬으면서 관리해 주는 사랑의 손길이라면 경영실적은 목표를 추월해 가고 있을거라는 확신을 가져도 되겠다. **養豚**